

108 학년도 1 학기 원아시아재단 국제 강좌

「인문교양수업 : 아시아공동체 :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 강좌 시리즈(1)

주제:대만 동아시아학 연구의 구축과 발전

중국문화대학교 108 학년도 제 1 회 원아시아재단 국제 강좌의 강연자는 서흥경(徐興慶) 총장님께서 맡으셨다. 주제는 '대만 동아시아학 연구의 구축과 발전'이었다. 이 수업은 원래 외국어대학에서만 수강 가능했으나, 전교생에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 학년도부터 인문교양수업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셨다. 이 수업을 개설하기 위한 신청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작년부터 일본 원아시아재단의 후원을 받아 수업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업은 매주 다른 국내외 학자들이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모처럼 얻게 된 기회를 통해 매주 각 분야 최고의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보람찬 한 학기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총장님께서 수강생들을 격려해 주셨다.

일본 원아시아재단은 미래 아시아공동체를 창건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관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아시아 정세가 혼란스럽고, 중미 무역전쟁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이 향후 10 년 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정세 하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역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유럽은 유럽연합을 어떻게 설립하였는가? (내지 유로화폐의 생성)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피눈물을 흘렸다. 과거 유럽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역사, 영토문제 등 그 복잡함은 결코 아시아에 못지않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설립과 유로 화폐가 생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아시아공동체, 심지어 더 나아가 아시아화폐가 생성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학은 탐구할 만하고 매료될 수밖에 없는 학문이다.

‘아시아공동체’라는 개념은 이미 백 년 전부터 거론되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그후에 아시아는 전쟁과 역사로 인해 수많은 불행과 난제에 봉착했다. 요즘에도 중일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그로 인해 아시아공동체를 설립하는 데에 아직 어려움이 많다. 원아시아재단의 사토요지(佐藤洋治) 이사장은 ‘아시아공동체’를 실현하려면 ‘자아의 벽’, ‘기업과 단체의 벽’,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벽’등 세 가지 장애물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재단이 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성과 ‘전쟁이 없는 세상’이라는 이념을 교육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총장님은 아래에 제시하는 일곱 가지 강연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기의 구상과 지금까지 참여해왔던 동아시아학을 구축하는 업무를 설명하셨다.

- 一、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탐구하는 대만 동아시아학 연구의 구축과 발전
- 二、타 문화 관점에서 보는 국제일본연구의 가능성

三、일본연구에서 보는 대만과 일본 120 년 간의 교류

四、동아시아의 지식 교류-국경 초월, 기억, 공존

五、대만·일본 아시아 미래 논단(論壇) (아츠미장학재단(渥美国際交流財団),

국립대만대학교(國立台灣大學), 원지대학교(元智大學) 공동 주최)

六、동아시아 일본 연구자 협의회(서흥경(徐興慶) 총장이 한, 중, 일

제일선(第一線)학자들과 공동 창설)

七、대만·중국문화대학교 '동아시아 인문사회과학대학원' 임무(중국문화대학교

안의 학술연구자원을 통합하고자 창설하는 것)

총장님은 대만 '국제동아시아학'의 구축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하셨다. 그것이 바로 '각 나라의 동아시아학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더욱 더

시스템적인 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여러 대학들과 함께

'양명산학(陽明山學)계획서를 작성했다. 이는 본토 학문을 발전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국제화와 학제화를 중요시하게 여겨 있는 지금,

총장님은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만의 일본연구는

왜 필수적인가?',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 다음, 2010 년 10 월에 '대만과 일본 간의 상호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주최한 일본연구 논단(論壇)을 소개하셨다. 그 자리에 일본 문화청 장관 아오키

타모츠(青木 保)교수를 모시고, '이문화의 시각-국제일본연구의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 타 문화 간의 이해와 타인을 존중하는 객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총장님은 '국제일본연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국제일본연구는 국제대만연구, 중국연구, 한국연구와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인류공통학술을 이용해서 진행될 것이며, 해당 나라 혹은 지역의 문화와 생활방식이 가진 특성을 발굴하는 작업을 말한다. 국제일본학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연구 분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일본연구, 국제일본연구도 학제(學際)적으로 다른 학술 분야와 연결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지역연구는 갈수록 중요해진다.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 자신의 지역과 다른 지역,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를 탐구 대상으로 삼을 때, 서로를 이해하면 가져올 수 있는 평화와 안정된 국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새로운 협업 방식을 구상하셨다. 그리고 '인문과 사회를 향한 대화', '동아시아의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해석', '신진 학자 양성', '국제공동연구 창설' 등의 의견을 제기하셨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

번역: 劉有容(한국어문학과 학사)

감수: 金善孝(한국어문학과 부교수)